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7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2만 6천 명 증가
 - 고용률은 61.1%로 전년동기와 같음. 15~64세 고용률은 66.3%로 전년동기대비 0.3%p 상승
- ◎ (특징) 7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음
 - 20대 초반 고용 증가세 축소 및 50대 이상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
 - 상용직 증가폭 확대 및 자영업자 감소 지속
 - 제조업, 음식숙박업, 방송통신업,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 증가 및 농업부문과 금융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
- ◎ (비경제활동인구) 11만 4천 명 증가하였는데, '쉬었음'의 이유로 한 비경황 증가폭은 둔화(9만 2천 명), '통학'으로 인한 비경황 감소폭 축소(13만 7천 명)
- ◎ (연령대)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
 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2만 5천 명 증가(50대 18만 명 증가, 60세 이상 17만 3천 명)
 - 청년층 취업자 수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침. 청년층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던 20대 초반(20~24세)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 증가에도 미치지 못함

- ※ 이 연령계층이 메르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, 7월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30, 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, 남성 취업자 감소가 크기 때문임

- ◎ (중사상 지위) 상용직의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
 - 상용직은 46만 2천 명이 증가. 상용직 증가는 5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40대 상용직도 크게 증가. 업종별로는 제조업(16만 5천 명), 출판·영상·방송·통신업(6만 2천 명), 사업서비스업(7만 4천 명)이 주도하였음
 - 임시직은 다시 감소로 전환(3만 1천 명).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던 24세 이하에서 감소.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(4만 8천 명)은 증가하였지만, 도소매업(2만 2천 명)과 금융보험업(4만 8천 명)은 감소
 - 일용직 증가세 유지(4만 7천 명). 건설업(3만 4천 명), 음식숙박업,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
 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폭 축소(2만 1천 명 증가). 50대 이상은 늘고, 30, 40대는 감소
 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7천 명 감소. 50대(5만 2천 명), 60대 이상(4만 5천 명) 감소 및 농림어업(8만 6천 명)의 감소폭이 큼
 -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5천 명 감소

- ◎ (업종) 제조업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, 서비스업은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며,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
 - 제조업은 17만 명 증가.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상용직(16만 5천 명) 일자리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증가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큼. 20대 증가폭은 축소
 - 서비스업은 21만 2천 명 증가.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5세 이상(29만 1천 명)에서 주로 증가. 주로 상용직(32만 4천 명) 일자리로 중소기업(19만 5천 명)에서 증가

- ※ 방송통신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조금씩 확대
- ※ 음식숙박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, 증가폭이 축소
- ※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는데, 특히 보건업은 감소로 전환. 메르스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※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는 주로 보험연금업에서 감소
-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9만 1천 명 감소.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
- 건설업은 2만 5천 명 증가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5년 1~5월 평균 명목임금(3,246천 원)은 전년동기대비 3.2% 증가. 실질임금은 2.6% 증가
 - 상용근로자의 1~5월 평균 정액급여가 2.8% 상승에 그치고 특별급여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초과급여 상승에도 임금총액(3,429천 원)은 2.8% 상승에 그침
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1~5월 평균 임금총액(1,410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0.8% 증가
 - 전체 임금인상률이 상용근로자 임금인상률과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전년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- ◎ 2015년 1~5월 평균 근로시간(168.6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1.4%(2.4시간) 감소
 - 상용근로자의 1~5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.5% 감소
 - 비상용근로자의 1~5월 평균 근로시간은 112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9% 감소